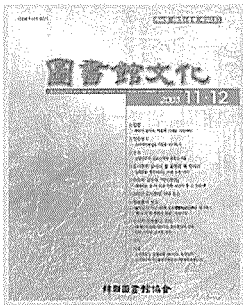


협회소식

《도서관문화》, 월간으로 전환

우리 협회 기관지인 《圖書館文化》가 2004년 1월호부터 월간으로 발행된다. 《圖書館文化》는 1988년 1·2월호부터 2003년 11·12월호까지 16년간 격월간으로 발행되어 왔다.

우리 협회 기관지의 창간호는 1957년 7월에 발행된 《圖協月報》이며, 지난 47년간 《도협월보》, 《圖協 뉴스》, 《圖書館研究》, 《圖協會報》 등의 이름으로 제호와 간기 등이 변경되어 발행되어 왔다.



2003년 11·12월호



2004년 1월호

관형과 제호는 2003년과 동일하나 영문명의 경우 TOSOGWANMUNHWA에서 DOSEOGWANMUNHWA로 수정하였으며, 발행일자는 매달 25일로 정하였다.

월간으로 전환하면서 도서관탐방, 인터뷰, 21세기와 문화 그리고 삶, 해외도서관 사정, 30년 전 우리는, 도서관분야 NGO를 알아봅시다, 우리분야 새로 나온 책, 통계로 보는 도서관계, 도서관계 일지, 독자양케이트 등의 코너가 새로 마련되었다. 앞으로 『도서관문화』의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하며 도서관계의 종합적인 소식과 정보를 총망라하는 역할을 해내기 바란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도서관 운영 지원예산 지방으로 이양 추진

최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소속 국고보조금 정비 태스크포스(TF) 사회 1팀 위원들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도서관 운영 지원예산(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을 지방으로 이양하자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서관 자료구입 예산을 국고와 지방비에서 각각 50%씩 확보해 오던 상황에서, 예산지원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넘기는 이번 결정은 도서관의 자료구입예산 확보를 더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협회와 도서관 관련 단체장이 연명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소속 국고보조금 정비 T/F 사회 1팀 위원들에게 이번 결정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66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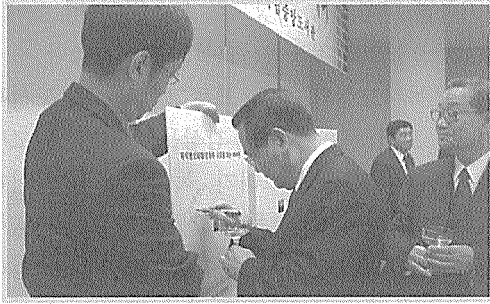
신년교례회 개최



〈좌로부터 : 한상완 부회장, 김남석 前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박계홍 前 회장, 손용근 법원도서관장, 신기남 회장, 이정일 대한출판문화협회장, 배양규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장, 최성진 前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신현택 문화관광부 기획관리실장, 임병수 국립중앙도서관장〉



〈떡 자르기 행사〉



〈신년 덕담 쓰기 행사〉

우리 협회는 2004년도를 시작하면서 한해 시작의 각오와 도서관계의 더 많은 발전을 다짐하기 위해 1월 12일(월) 국립중앙도서관 식당에서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이번 교례회에는 약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신기남 회장의 인사말씀과 내빈의 축하말씀, 건배 및 떡 자르기, 신년 덕담쓰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전문위원회

어린이·청소년봉사위원회 2004년도 제1차 회의

- 일시 : 2004년 1월 15일(목) 10:30
- 장소 : IFLA2006공동준비위원회 회의실
- 안건 : 1) 농어촌공공도서관 어린이실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일
2) 위원회 2004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일
3) 기타
- 참석 : 송영숙(위원장), 김경숙, 이숙자(이상 위원)

국내소식

도서관 관련 단체 신년하례식 잇달아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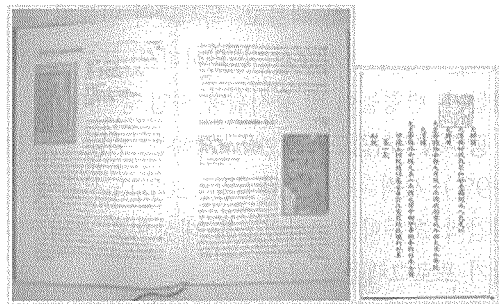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이정업)는 1월 7일(수)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출판계 화합과 발전을

다짐하는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우리협회에서는 한상완 부회장과 이현주 총무부장이 참석하였다.

한편 한국박물관협회(회장 김종규)는 1월 12일(월) 오후 4시 로명갤러리에서 박물관·미술관인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는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또한 지난해 북스타트 사업과 기적의 도서관 사업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상임대표 도정일)은 1월 14일(수) 대한출판문화협회강당에서 신년하례식을 개최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귀중고서 해제집 『선본해제 V』발간



〈선본해제 내용〉

〈대한국대청국통상조약〉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임병수)이 소장 고전적에 대한 해제집 『선본해제 V』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에는 1899년(광무3) 조선과 청나라간에 체결된 조약문 『대한국대청국통상조약(大韓國大清國通商條約)』(서울시유형문화재 111호) 등 다수의 구한말통상조약 원본과 1451년(文宗1) 목판본으로 간행된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藥師瑠璃光如來本願功德經)』 등 귀중본 229종 633책에 대한 해제와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귀중고서의 목록 정보와 함께 자료별로 상세한 해제를 수록한 이번 해제집의 발간으로 관련학계 및 연구자들이 자료를 이용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은 금년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선본해제 VI』를 발간할 예

정이다.

『선본해제 V』에 수록된 자료의 원문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www.nl.go.kr → 자료 찾기)의 원문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문의: 국립중앙도서관 고전문영실 이귀원, 전화: 02-590-0574]

공공도서관 '겨울독서교실' 다채로워

인천중앙도서관(관장 박상근)은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2004년도 겨울독서실을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하였다. 참가학생 중 우수학생에게는 교육감상, 국립중앙도서관장상, 도서관장상 및 부상도 수여하였다. 겨울독서실의 주요 강의내용은 도서선택 및 도서검색, 독후감상문 작성법, NIE를 활용한 책광고, 독서달력 만들기, 독서퀴즈, 어린이 환경교실, 동화비디오 감상, 팝업북 만들기, 변형놀이 및 동시활용 수업 등이다.

광주광역시립도서관(관장 조영춘)은 무등(1월 5일~9일), 사직·산수(1월 6일~10일)도서관에서 5일간씩 초등학교 5학년들을 대상으로 우리 역사 알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광주일곡도서관(관장 조정희)은 1월 2일부터 31일까지 '도서관과 함께 하는 겨울방학학교'를 운영하였다. 유아(4~7세)대상의 레고에듀 창의력반·레고에듀 과학기초반(화요일 오후 3~5시)과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한 꿈나무미술반(화요일 오후 2~4시), 초등학교 3~5학년 대상의 재미있게 배우는 어린이경제(금요일 오후 2~4시), 초등학교 1~5학년 대상의 발표력향상을 위한 스피치교실(금요일 오후 2시~4시)이 진행되었다.

광주중앙도서관(관장 정형현)은 초등생을 위한 한자교실(1월 2일~20일), 생각을 키우는 글쓰기 교실(1월 2일~17일)을 마련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창원도서관의 30개 공공도서관에서 초등학생 1438명을 대상으로 2004년 겨울독서교실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각 지역 공공도서관별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월 6일부터 4~10 일간의 일정으로 겨울독서교실을 실시하였다.

이번 독서교실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도서관 이용법, 도서 선택법, 독후감상문 작성법, 원고지 쓰는 법, 독후감상화 그리기, 독서퀴즈 등 독서관련 프로그램이며, 기타 독후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서관 사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개인 및 집단 지도를 병행한다. 또한 각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태도, 독서량, 독후감 및 감상화 내용, 출석 등을 종합해 성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상 및 교육장상과 도서관장상 등을 시상하였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건립공사 착공

경기도는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34번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4천평 규모의 경기도립중앙도서관(관장 신철빈)을 오는 2006년 3월 준공 목표로 건립한다고 밝혔다.

전액 국·도비 지원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에는 모두 150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이 심의되면서 본격 시작됐으며, 9월 수원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을 받는데 이어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 도서관은 기본설계 심의 및 평가를 거쳐 오는 8월께 착공할 예정이다.

수원에 2005년까지 도서관 5개 건립 예정

수원시가 오는 2005년까지 어린이·지식정보도서관 등 5개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어린이 도서관의 경우 각 구별로 40억원, 총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04년까지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어린이도서관 부지는 장안구 송죽동 136번지 만석공원(35만5천800㎡), 권선구 곡선동 1310번지 권

선3공원(3만3천855㎡), 팔달구 매탄동(1천612㎡)이 각각 선정됐다.

2005년까지 총사업비 143억원이 투입되는 지식정보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장안구 정자동 정자공원 (5만1천89㎡ 부지), 권선구 탑동지구(1만4천670㎡)에 각각 건립된다.

수원시는 2004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4월께는 착공토록 한다는 계획이며, 문화관광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인구 6만 명당 1개 도서관 확보를 위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지역출신 문인 전문자료실 설치

경기도는 경기도를 발전시키고 도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도내 각 공공도서관에 전문 자료전시실을 적극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道)는 지난해 청록파 시인 혜산(兮山) 박두진(朴斗鎭, 1916.3.10~1998.9.16) 선생의 전문 자료실을 고향의 안성시립도서관에 설치했다. 이 자료실에는 박두진 선생과 청록파 시인들의 집필관련 자료, 작품 등이 전시 되어 있다.

올해는 의정부시식정보도서관에 천상병(千祥炳, 1930.1.29~1993.4.28) 시인의 전문자료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문화관광부가 선정하는 이달의 문화인물중 도 출신 인물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전문 자료전시실을 적극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문학세계, 작품 등을 한 자리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전문도서관 건립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양시 석수도서관, 지문날인 시스템 도입 논란

경기도 안양시가 최근 개관한 안양시립 석수도서관(관장 이승우) 열람실에 지문인식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안양시는 만안구 석수3동 4148평의 터에 공사비 180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3224평에 첨단 디지털 방식으로 2000석 규모의 석수도서관을 지어 2003년 12월 19일 준공과 함께 문을 열었다.

시는 이 도서관을 개관하면서 이용하는 시민들마다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인식을 해야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문인식 시스템'도 설치했다.

이에 열람실을 찾은 일부 시민들은 어귀에 설치된 지문인식기에 자신의 지문과 주민등록번호를 인식시켜야만 열람실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책을 읽기 위해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에게까지 개인정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주민등록번호와 지문까지 인식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달동네의 '작은 기적', 주민들 도서관 건립



서울 용산구 용문동 125번지 대문도 없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달동네에 2003년 12월 21일 주민들이 스스로 세운 '기적의 도서관' (사무국장 김재경)이 설립됐다.

주민들이 도서관 건립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이다. 고층 재개발 아파트에 둘러싸여 섬 아닌 섬이 된 동네에서 아이들은 어두운 골목, 시장통을 누비며 놀아야 했다. '애들만이라도 안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주민 50여명이 모여 도서관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월세 15만원의 싼 값으로 20평

납짓한 공간을 마련, 도서관을 개관하게 되었다.
[문의 : 전화 : (02)6081-6150]

KISTI, 'Question포인트' 서비스 개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1월 5일부터 'Question포인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Question포인트'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구성된 디지털협력정보서비스(Collaborative Digital Reference Service: CDRS)인 'QuestionPoint'의 한국어판 서비스 명칭이다.

'Question포인트'의 모체인 'QuestionPoint'는 미국의회도서관(LC)과 OCLC가 공동 개발하여 2002년 6월부터 전세계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2003년 현재 세계 300여개 도서관 소속 주제 정보전문가들이 웹상에서 이용자에게 묻고 답하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10개 언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한국 이용자들이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QuestionPoint'의 모든 인터페이스와 설명을 한글로 번역하고 한글 인터페이스를 OCLC 서버에 올림으로써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앞으로 국내 이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Question포인트'에 접속하여 한글로 묻고 대답하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04년에는 KISTI를 중심으로 국내 여러 도서관이 'Question포인트' 서비스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학, 기술, 산업 분야의 보다 많은 국내 이용자들이 디지털협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 KISTI]

출판인회의, 서평誌이더 '청소년교양도서' 목록 제작

300여 단행본 출판사가 설립한 한국출판인회의(회장 홍지웅)는 '2004 청소년 교양도서 목록'을 제작,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청소년 기구, 독서운동

단체 등에 무료 배포한다. 출판인회의 회원사가 청소년을 위해 자천한 601종의 책을 문학,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문화·예술, 만화, 실용 등 8개 분야로 나눠 소개하고 해제를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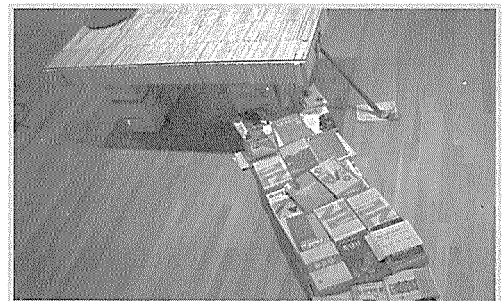
출판인회의가 '책을 위한 책'을 낸 것은 최근 격월간 서평지 '북&이슈'를 펴낸 것에 이어 두 번째다. 앞으로 10개의 출판사가 참여해 20권을 충실하게 소개하는 무크지를 적어도 두 세달에 한 번씩은 펴낼 예정이라고 한다.

책을 주제로 한 두 개의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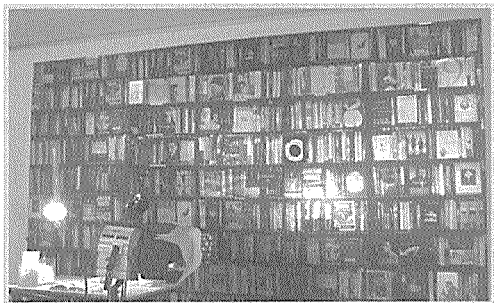
시간동 금호미술관의 '북 프로젝트-사람을 닮은 책, 책을 닮은 사람' 전(이하 북 프로젝트)과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의 '아트 북 아트'전이 열리고 있다. 미술계에서 책과의 접목을 시도한 전시들이다.

금호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북 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 2월 28일까지 개최된다. 44명의 미술가와 13명의 어린이가 참가한 '북 프로젝트'는 책을 주제로 번뜩이는 상상력을 선보인다.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보고 즐기기에 적합하다.

책을 일일이 오려서 만든 실물 크기의 소파가 버젓이 놓여 있는가 하면 기린 젓소 얼룩말 등 동물 가족으로 귀엽게 두른 책들이 우아한 '패션'을 뽐낸다.



물이 있는 공간인 오아시스(양재운 작품)와 목욕탕을 꾸며놓고 주변 곳곳에 책을 비치해 아이들이 누워서도 편히 독서할 수 있도록 한다. 입장객



은 누구나 책을 한 권씩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문의: 전화: (02)720-5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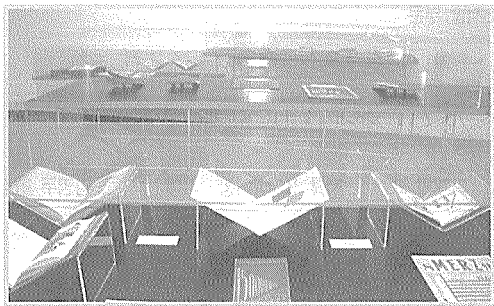
국립현대미술관(관장 김윤수)과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이정일) 공동주최로 지난해 12월 25일부터 금년 2월 1일까지 파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2003 서울 북 아트전'은 조형적 수단으로서의 책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이다.

전시에는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20여 개국 300여 작가의 아트 북 및 북 아트와 미술작품 500여종이 출품되었다.

한국의 미서로는 김홍도가 그린 『오륜행실도』 4책 5권이 공개되었고, 일제 강점기부터 1950년대까지 김용준, 김환기, 정현웅, 이중섭, 한묵, 박고석, 최재덕 등이 장정에 참여한 근대도서들이 출품되었다.

또한 최초의 번역시집인 김억의 『오뇌의 무도』(1921)와 최초의 시집인 『해파리의 노래』(1923), 김소월의 『진달래꽃』(1926), 김동인의 『감자』(1935)등 희귀본들이 전시되었다.

해의 도서로는 일본 무사시노예술대학 협력으로 현대 디자인의 기초와 아트북의 본격적인 시작을 이룩했다고 평가되는 아방가르드 작가들의 아트



〈아방가르드 작가들의 아트북〉



〈수제종이 만드는 장면〉



〈함께 만드는 북아트 행사 모습〉

북 70여종이 소개되었다

한편 '함께 만드는 북아트' 시간이 마련되어 전시회의 즐거움을 더했다. [문의: 전화: (02)2188-6044]

제44회 한국백상출판문화상 수상도서 발표

한국일보사가 제정한 제44회 한국백상출판문화상 수상 도서에 『간다라 미술』 『현산어보를 찾아서』 등 6종이 선정됐다. 저자 및 번역자, 출판사에 주어지는 상금은 각 500만 원이며 시상식은 오는 1월 29일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열린다. 부문별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 저술 부문

- 학술 『간다라 미술』(이주형 지음. 사계절 펴)
- 교양 『현산어보를 찾아서』(이태원 지음. 청어람미디어 펴)

■ 번역 부문

- 『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이항 · 기대승 지음. 김영두 옮김. 소나무 펴)

■ 편집 부문

- 『세계민담전집』(신동훈 외 엮음 · 옮김. 황금가지 펴)
- 『태학산문선』(정약용 외 지음. 정민 외 옮김. 태학사 펴)

■ 어린이청소년 부문

- 『보리 어린이 노래마을』(백창우 곡. 강우근 외 그림. 보리 펴)

* 국외소식 *

구글(Google) 검색기능 도서로 확대

정보검색엔진 구글이 좀 더 심도 깊은 콘텐츠 검색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구글은 OCLC와 제휴하여 OCLC 온라인 종합 목록데이터베이스인 WorldCat 레코드를 색인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해당도서관의 자료와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색인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출판사에 출판내용을 넘겨줄 것도 설득하고 있다. 제공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마존처럼 일부 초록 구절만 제공하지는 않을 것 같다.

구글은 또한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와 협력하여 IEEE의 학술지 기사를 제공함과 더불어 관련 키워드 검색으로 다른 발간물 정보들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구글은 현재 IEEE 온라인 검색창을 통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IEEE 기술문서와 표준에 관한 색인정보를 수집 중이다. [출처 : <http://www.libraryjournal.com/article/CA333253> · display=breakingNews]

미 의회도서관장,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면책규정 공표

미국의회도서관 빌링턴(James Billington) 관장은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의 반침입규정인 1201(a)조항에 대한 새로운 면책유형을 공표하였다.

DMCA는 1998년 제정되었으며 영화, 소프트웨어, 도서 등 디지털저작물의 불법사용을 막기 위해 고안된 기술(access code)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빌링턴은 이러한 반침입규정에 대한 면책이 되는 유형을 두 가지로 제한하고, 모든 디지털 저작물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에 연결된 경우에만 면책을 허용되도록 하였다.

이번 조치로, DMCA 반침입 규정이 일반인들에게 디지털 저작물을 제공하는 도서관의 기능을 저해한다고 주장해왔던 도서관계는 불리하게 되었다. DMCA에 대한 재검토는 2006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출처: <http://www.libraryjournal.com/article/CA333597> · display=breakingNews)

독일, 남극 노이마이어 과학기지에 도서관 설립 추진

독일방송(Deutsche Welle)에 따르면, 올해 남극의 거대한 빙하 한복판에 1000여 권의 장서를 갖춘 도서관이 들어선다고 한다. 남극 베델 해에 위치한 독일 노이마이어 과학기지에 설립될 이 도서관은 연중 살을 에는 혹한과 거센 눈보라로 고립되어 있는 남극 땅에 '예술과 문학의 훈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독일 내 유명인사들이 동참 의사를 밝히고 지원에 나섰다 하는데, 이들 중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귄터 그라스를 포함, 저명작가인 크리스타 볼프, 영화감독 톰 틱베어 등도 있다. '얼음 위 도서관'은 독일의 화가이자 조각가인 루츠 프리취의 아이디어이다.

도서관에 소장될 책들은 각계 인사들로부터 추천받는다고 한다. 권터 그라스는 이미 자신의 소설 '나의 세기'를 기증했다고 한다. 책에는 기증한 사람들의 자필사인과 함께 선정이유가 들어간다고 한다. 도서관 건립 비용은 노이마이어 연구소에서 일부를 부담하며, 나머지는 '얼음 속 도서관'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기념품을 팔아 조달할 계획이다.

변경·이전

울산북구공공도서관 이전

울산북구청은 1월 4일 현재까지 동울산세무서 3층을 빌려 사용해왔던 북구공공도서관을 1월 7일부터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로 우선 이전해 사용키로 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연구원이 2004년 1월 9일자로 국립산림과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인사동정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신임 임원진

한국도서관·정보학회가 2003년 12월 19일 열린 총회에서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하였다. 새로 선출된 임원진은 2004년 1월 1일부터 2년간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회장 김승환 교수(강남대), 부회장 이창수 교수(경북대), 사공복희 교수(전남대), 송정숙 교수(부산대) 등이 회장단으로 선출되었고, 감사는 서진원 교수(전북대), 강숙희 교수(시립인천전문대) 총무이사는 박철완 교수(강남대), 담당 간사는 백

성규(강남대도서관) 사서가 맡게 되었다. [문의: 전화: 031-2803-720, 전송: 031-2803-504, 총무이사: ckwak@kangnam.ac.kr, 간사: skbaek@kangnam.ac.kr]

한국정보관리학회 신임 임원진

한국정보관리학회가 2003년 11월 21일(금) 열린 총회에서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하였다. 새로 선출된 임원진은 2004년 1월 1일부터 2년간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회장 남태우 교수(중앙대), 부회장 김석영 부장(KISTI 정보유통부), 정동열 교수(이화여대) 등이 회장단으로 선출되었고, 감사는 김이겸 교수(광주대), 서은경(한성대), 총무이사는 남영준 교수(중앙대)가 맡게 되었다. [문의: 전화: 02-820-5144, 전송: 02-815-4467, 총무이사: namyj@cau.ac.kr]

※정정합니다.

2003년도 11·12월호 :

- 44쪽 강원대 도서관 '日 전문자료실' 설치 소식 기사 중 강원대도서관(관장 강홍립)을 강원대도서관(관장 이광래)로 정정합니다.
- 37쪽 '출판위원회 2003년도 제4차 회의' 기사 중 오경옥을 오경목으로 정정합니다.